

월리가 올라가 본
변신중인

옥상



2002년부터 서울시에서 지원해온 사업이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다.
 잡동사니 또는 살림살이들을 쌓아 놓거나 빨래를 널어두던 옥상의 변신이 바로 그것이다.
 오두막집이 있는가 하면 파라솔과 벤치를 놓아 지상의 공원보다 화려하기도 하고
 연못에 각종 식물을 재배해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의 옥상은 옥상활용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작은 풀'이라 이름 붙여진 이곳은 인위적인 관리를 최대한 자제한 환경을 조성, 100여 종의 식물을 재배해 매주 목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생태탐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20여 명의 신청자를 받아 진행되는 교육은 평소에 보기 힘든 야생화와 30여 종의 벌레들을 관찰할 수 있어 인기가 높으며 '건설기술, 건축문화'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서울특별시청 서소문 별관 3동 옥상은 한적한 시골에 있을 법한 들국화가 도심의 빌딩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 ① 신세계 백화점 본관 옥상
- ② ③ ④ 서울특별시청 별관 옥상



한편, 현대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들도 앞 다투어 옥상공원을 조성했다. 고객 편의를 위해 옥상 녹화사업에 눈을 뜬 것이다. 구리시 GS스퀘어 백화점은 백설공주와 난쟁이 컨셉으로, 현대 백화점 천호점은 고객을 위한 무료 카페(우수고객에게 무료로 커피 등을 제공)로 가족 단위의 놀이공간을 제공한다. 잘 가꾸어진 잔디와 벤치로 즐거운 사람들의 놀이터로 변신에 성공한 것이다.

신세계 백화점은 조각공원을 테마로 한 옥상의 변신 등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본점의 'TRINITY(삼위일체) GARDEN'은 야외 갤러리의 분위기와 수준 높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미국 록펠러 센터, 워싱턴 야외 미술관, 일본 롯본기 힐스와 여기 신세계 별관에 만 있는 높이 4m에 감정가만 무려 40억 원에 달하는 루이스 부르조아의 '거미'의 규모에 압도당하는데 '거미'는 아쉽게도 미국에서 작품 보수가 진행 중인 관계로 10월경에나 다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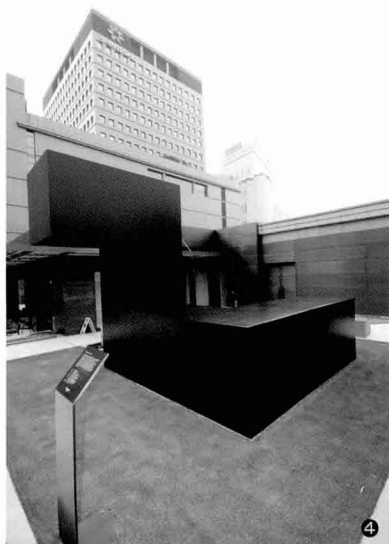
이외에도 Tony smith의 Night를 비롯해 Henri Moore의 Arch leg(아치형 다리) Joan Miro의 'Personnage'(인물), Alexander Calder의 'Bougnat'(파리에서 주로 숫장사를 하던 오베르뉴 사람) Claes Oldenburg의 'Architect's Handkerchief'(건축가의 손수건)등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들어서 있다.

'물 위의 조각'이라는 concept를 갖고 있는 이곳 'TRINITY GARDEN'에서 특히, Moore의 작품 앞에서면 관람객들이 조각품 너머의 공간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고 어느새 작품 한 공간에 어우러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데, 명동 일대의 고층 빌딩과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모든 작품들이 물 위에 전시되어 더욱 이채를 띠고 있다.



신세계 본관 옥상에 조성된 TRINITY GARDEN

- ① Henri Moore의 Arch leg(아치형 다리)
- ② Joan Miro의 'Personnage'(인물)
- ③ Claes Oldenburg의 'Architect's Handkerchief'(건축가의 손수건)
- ④ Tony smith의 N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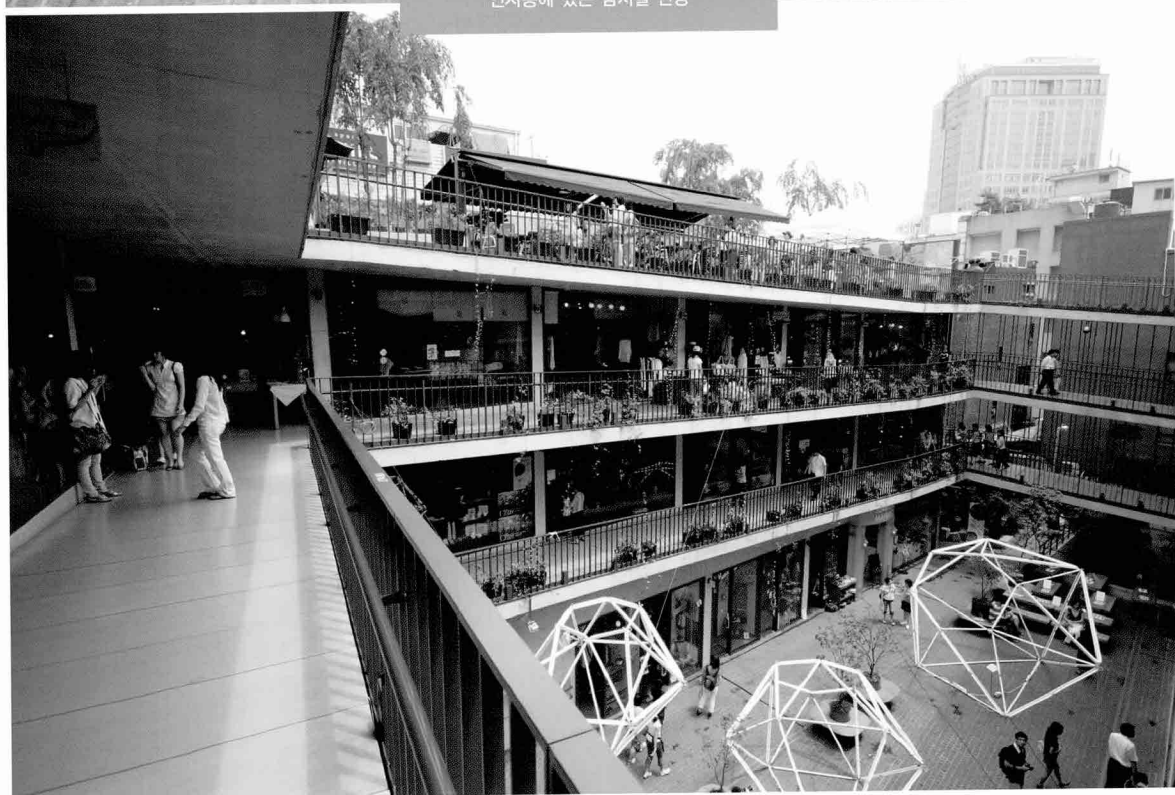


백설공주와 난쟁이 컨셉으로
조성되어 가족 방문객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는 구리 GS스퀘어
백화점 옥상.





인사동에 있는 삼지길 전경





① 인사동 쌈지길의 옥상 통로



현대백화점 천호점 옥상에 조성된 잔디정원

옥상을 좀 더 오밀조밀하게 꾸며 짝짝한 수입의 원천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다. 인사동 쌈지길이 대표적인 곳이다. 인사동의 특징을 건물하나에 집약했다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이 건물에는 장터가 있는가 하면 오솔길이 있고, 길거리 잡상인 같은 점포도 있다. 또한, 한편에는 ‘하늘장터’라 이름 붙여진 옥상이 있는데 이곳은 일종의 벼룩시장으로 옥상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편안한 공간이다.

옥상의 변신 그것은 보는 이, 찾은 이만의 즐거움은 아니었다. 실제로 백화점 옥상 공원에서 휴식을 취한 시민들은 무언가 백화점에 고마운 마음 반, 신세를 졌다는 마음 반 때문에 건물을 내려가다가 물건 한, 두 개를 구입하기도 한다니 서로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대규모 빌딩이 아닌 경우에도 옥상에 정원을 조성해 훌륭한 변신에 성공한 예도 많다.

옥상의 변신은 진행형이다. ②

(촬영에 협조해주신 서울특별시 조경과와 신세계백화점 홍보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